

##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1, 12, 13권을 왜 썼는가? - 교육학적 접근

이정인(서울교육대학교/성균관대 교육학 박사수료)

### I. 문제제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Confessiones)은 그가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며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표현한 저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인지 전체 13권인 『고백록』의 통상적인 읽기는 그의 삶과 회심을 다루는 8권, 길어봤자 10권에서 끝난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11-13권은 앞의 권들에 비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O'connell, 1989: 135), 어떠한 배경과 이유에서 서술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작들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찰한 『재론고』(Retrattationes)<sup>1)</sup>에서 『고백록』의 마지막 세 권은 성경에 관하여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6.1).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 11-13권의 성격이 명쾌하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고백록』의 마지막 3권이 무엇에 대하여 쓴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도하여 쓴 것이냐이기 때문이다.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풀이하는지, 삶의 서사와 성경 해석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고백록』의 전체 구조에서 11-13권을 고찰한 연구들을 보자면, 채드윅은 『고백록』의 마지막 3권이 이전 권들의 자서전적 서술에서 암시되었던 창조 의 전체 질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Chadwick, 1992: xxiv). 성염은 자신의 『고백록』역주서에서 11-13권은 당시 사람들의 성경 비판에 대한 반론이자 신에 대한 찬가라고 주장한다(성염, 2016: 36). 오도넬은 11-13권은 신과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 독자가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권들이며, 삼위일체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O'donnell, 1992: 250-251). 쿼인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마니교의 성경 왜곡에 대한 교리적, 도덕적 대응이 서술되어 있는 권들이라고 주장한다(Quinn, 2002: 663).

위와 같은 해석들은 『고백록』의 11-13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력한 접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백록』의 서술이 매우 다양한 색채를 띠는 점에서 연구자는 이전의 해석들이 밝히지 못한 『고백록』의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고백록』 마지막 3권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들이 종교적 또는 철학적 관심사에 머물렀다면,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은 교육학적 접근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향 또는 회심이 인간으로서의 그의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이룬 하나의 질

1) 『고백록』에 대한 『재론고』의 내용은 성염의 역주본(2014)에 있는 부록(p.572)에서 참조하였다.

적인 성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육학적 접근은 『고백록』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이라는 자신의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기록한 저작이라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고백록』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안한다. 1-9권이 자신의 삶에서 회심 즉 질적인 성장이 일어난 배경을 조망한 것이라고 보고, 10권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다고 본다면, 11-13권은 이러한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10권을 예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백록』에 교육학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둘째, 이러한 성격을 배경으로 11-13권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셋째 그러한 서술이 교육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힌다.

## II. 예비적 고찰: 『고백록』10권

9권까지 회심이라는 사건과 주교가 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는 10권의 서두에서 뜻밖에도 이제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한다(10.1.1.).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1권), 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가서 친구를 만나며(2-4권),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다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 깨우침을 얻고(5-6권), 이후 모종의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의 회심에 이르기까지(7-8권),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서술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나'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0권에서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논의했다면, 이제부터는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겠다'고 말한다(10.3.4.). 이러한 점은 '회심 이전의 나'와 '회심 이후의 나'가 구별되는 존재임을 뜻하며, '이전의 나'에 비하여 '이후의 나'는 회심을 통하여 질적인 성장을 이룬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전 권들에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자신의 모습인 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 안에 있는 자신, 즉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화된 자신, 질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새롭게 조명한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10.4.6.). 이를 위하여 10권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진리를 '보는 존재'에서 진리를 '행하는 존재'로의 전환을 시도한다(10.1.1.). 자신의 회심을 자신이 겪은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같이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백록』10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으로 변화한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성장의 상태인지를 해명하려고 하고, 내적인 변화의 원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조명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마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엇”이 있다(10.5.7).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 인간(homo interior)<sup>2)</sup>’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내적 인간과 대비되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외적 인간’이 존재한다. 인간은 감각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적 인간’과, 이성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적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전자와 후자를 각각 육체와 영혼, 세속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회심을 일으키는 교육적 성장은 외적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갖게 되는 기억, 사물 자체에 대한 이해, 정서 등을 내적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10.6.9).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적 인간은 내면의 넓은 바탕 위에서 모종의 작업을 통하여 질적인 성장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내적 인간의 주요 작업은 내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를 내면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10.5.7). 내면의 탐구는 외적 인간이 재료를 주는 대로 향상,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은 기억과 감관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기억과 감관을 넘어서 일어난다(10.7.11.; 10.17.26.).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적 성장 또한 양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뛰어넘어 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교육적 성장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는 이해에 이르는가? 내적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들을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교육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바로 11-13권이다.

### Ⅲ.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11-13권의 이해

#### 1. 『고백록』11권: 탐구의 형식으로서 기도

11권의 초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계속하여 말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 받으실 분”이기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느낀 바(affectus)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보여서 “당신께서 그들을 구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11.1.1).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11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주고자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성장에 이르렀는지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계기를 열어 보이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점에서 11권 이하의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쓰는 여분의 장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이며, 오히려 말하고 싶어서 ‘애가 타던’ 장이다(1.2.2).

많은 학자들은 11권에서부터 이어지는 천지창조라는 주제와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적인 주장에 주목한다(Jordan, 1972; Lacey, 1972; Sorabji, 1983; Lloyd, 1999; Helm, 2014; Knuuttila, 2014). 이를 논의하는 것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풀어내고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인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탐구 내용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식에 주목

2) ‘내적 인간’은 “인간의 내면”으로 번역도 가능하다. 성염 역, 2016: 355 각주 49 참조.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 의미하는 바는, 11권 전체가 하나의 기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1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논의를 기도로 시작한다.

주, 저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 자비가 제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에게만 절실한 소원이 아니고 형제간의 사랑에도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까닭입니다. (11.2.3.)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기도는, 이후에도 보이겠지만, 11권의 곳곳에 등장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기도의 형식 아래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권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기도라고 본다면, 우리는 11권이 갖는 특징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도는 '진리를 묵상할 시간' 이자(11.2.3.) 그러한 진리를 보여 달라고, 즉 "문을 두드리는 저에게 당신 말씀의 내밀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의지의 표현이다(11.2.4).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창세기」의 첫 구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이다. 자문자답 형식의 변증법적인 구조를 취하는 천지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를 논증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개로 시작된다.

Q: (어떤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장인이 했다고 말한다.(11.5.7.)<sup>3)</sup>

A: 그러나 장인이 만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질료는 누가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다.

Q: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11.5.7.)

A: 말씀을 하시니 생겨났다.

Q: 어떻게 말씀을 한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하니 생겨난 것인가? 말을 전달할 물질이 없는데도 말이 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처럼 모종의 시간의 과정이 있는 것인가?(11.6.8.)

A: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따라서 말씀은 동시에 영원히 발설된다(11.7.9.).

Q: 태초의 말은 어떻게 무슨 속성을 가지며,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11.8.10.)

(하락)

기존의 성경의 천지창조를 비판하는 질문들에 맞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위에서 밑줄 친 부분처럼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답을 해나간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경우, 또는 자신의 이해 수준을 벗어난 질문의 경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보는 보는데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다고 한다(10.8.10.). 이 시점에 이른 아우구스티누스는 믿는 바에 상응하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무지의 상태에 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취하는 주요한 탐구 형식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를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아래 기존의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한다. 이를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의 말씀은 하나의 발화라기보다 하나의 지혜이며 그것이 빛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는 아우구

3) 장인(artifex)이라는 단어는 플라톤이 『티마이오스』(Τιμαίος)에서 세계를 장인(δημιουργός)가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질료를 가지고 빚은 것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의 플라톤 사상의 천지창조설을 가장 주요한 비판대상으로 의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티마이오스』와 『고백록』 11권 논의의 연결점에 대해서는 Hoening(2018) 5장을 참조하라.

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이 그에게 “내면의 말씀을 건네시는 당신 소리를 듣도록 간청하는” 데서 얻어진 대답이다(10.9.11.).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태초 이전의 상태를 따지는 자들의 질문을 다룬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창조를 하셨는가? 그렇다면 갑자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없던 의지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신의 의지를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가(11.10.12.)? 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차적인 대답은 ‘모른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단자들에 맞설 수 있는 대답을 얻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신에게 기도한다. “아무 피조물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 피조물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아는 전부이며, 뭔가를 제가 안다면 유익이 되게 알고 싶으며, 저 스스로도 제발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11.12.14.) 그리고 난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자라는 전제 아래에서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은 성립할 수 없는 질문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창조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영원성에 대비되는 유한한 사물이 갖는 시간성은 창조를 하면서 생겨난 성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성을 하나님께 귀속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11.13.15.).

이후 시간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과정들이 반복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증법적 탐구를 통하여(11.15.19.; 11.27.34.; 11.27.36) 시간에 대한 심화된 주제들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지점들이 존재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때마다 기도를 한다. 그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자신을 보호하고 다스려달라고’(11.17.22), ‘자신이 조금 더 파고들도록 허락해달라고’(11.18.23), ‘저를 가로막는 무엇이 없게 해달라고 빌며’(11.22.28), ‘자신이 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그것을 비춰달라고’(11.23.30.) 기도한다. 이를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창조에 대하여 마땅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던 자에서, 이후에 외부의 질문들에 점차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는 자, 나아가 시간이 영혼 안에서의 세 국면 즉 과거라는 기억, 현재라는 주시, 미래라는 기대임을 알게 되는 자로 묘사된다(11.27.36-11.28.37.). 요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를 통하여 알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씩 알아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11권의 기도를 10권에서 제시된 내면의 탐구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내면을 무엇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기도라는 행위는 다른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들을 제거하고 알고자 하는 대상을 전일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행위는 자신을 일상적인 자신이 아닌 영원하고 탐구하는 자신, 즉 다른 존재로 보게 하며, 이 자체로 기도는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히 모르는 상태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내면의 탐구를 견지하는 결과 모종의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점검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구별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앎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기도는 탐구 행위인 동시에 그러한 탐구에 몰입하게 하는 의지를 다지는 행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 비록 당장은 모를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의지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반드시 자신에게 합당한 지식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의 성장을 일으킨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본 이러한 기도의 특징들은 인간이 갖는 삼위일체의 속성인 존재, 인식, 의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탐구의 상황 속에 놓이게 하고, 탐구의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게 하며, 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다는 열렬한 의지 아래에서 변화를 성취한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우리 안의 신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직접적인 답을 하는 대신, 새로운 권을 쓴다.

## 2. 『고백록』12권: 이해의 고유한 측면과 공적인 측면의 조화

11권에서 하나의 이해에 다다른 형식, 나아가 교육적 성장의 계기이자 과정이 기도라는 행위로 대 표되고 있다는 점은 각자의 내면 안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12권 서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 받고 찾는 이 얻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리라.” 이것이 당신 언약입니다. 진리께서 하시는 언약인데 속을까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2.1.1.)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 절에서 인간에게 속하는 땅 이외에도 하나님께 속하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의 하늘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땅만을 세계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12.2.2.). 이러한 서술은 우리가 내면의 탐구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내면의 탐구로서 기도는 분명히 모종의 이해에 다다른 길이지만, 그렇게 탄생된 이해의 성격은 개인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약점을 갖는다. 개인마다 이해의 방향과 편차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이해들 간에 상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내면의 탐구로 얻어냈다고 주장하는 이해라면 무엇이든지 옳바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를 통한 이해의 ‘근거’를 묻는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12.2.2.).

『고백록』 12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된 하늘과 땅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여러 해석들을 논의한다. 여기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은 우리의 이해방식에 대한 설명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닮아있다. 우리의 이해는, 태초의 하늘과 땅처럼, 처음에는 아직 뚜렷한 형상이 없는 상태로 주어졌다(12.3.3.). 그것은 특정한 무엇을 모르는 상태, 심지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前)이해 또는 몰이해의 상태는 기도 이전의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전이해의 상태는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완전한 형상에

비하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스를 정도로 형상을 갖추지 못한 불확실의 상태이자, 가변적인 상태 이자, 추측의 상태이다(12.6.6). 우리는 11권에서 이러한 무지의 상태에서 기도라는 내면의 탐구를 행한 것처럼 어떠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지면서 스스로” 이리이러하다고 파악하려고 한다(12.5.5). 우리는 이해의 상태로 가기 위하여 내면에 있는 불변성에 비추어 아직 모르는 것을 탐구한다(12.6.6). 여기서 말하는 불변성이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불변의 진리들을 뜻한다. 예컨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들 중 하나로 제시되며(12.7.7.), 동시에 이에 대조되어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임이 다시금 상기된다(12.8.8.). 가변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변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열망하는 바는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일”이다(12.6.6.). 그것이 하나의 확실한 앎이 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것에 기대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속성인 시원성(12.11.11.), 영원불변성(12.11.12.), 초월성(12.11.13.)을 제시하며, 이러한 속성이 각각의 내면의 탐구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모든 것의 공통된 기원이 있다는 것 영원불변한 무엇이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 이면에 초월적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혜(sapientia)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ration)과 지성(intellectus)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다(12.15.20.).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기준을 사람들이 가진 각자의 이해에 대한 ‘심판’으로 삼는다(12.16.23.). 예컨대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창세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현재 세상을 가리킨다고도 하고(12.17.24.), 무형의 질료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12.17.25.), 이후에 창조된 것들의 발단을 가리킨다고도 하는 등(12.17.26.) 다양하게 해석한다. 이러한 것들은 각자가 각자의 탐구를 통하여 도달한 이해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들이 하나님의 시원성, 영원불변성, 초월성을 긍정하며 믿고 있다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성경을 쓴 사람이 인지하던 바를 성서에서 인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신께서 진실이라고 제시해 주시는 바를 인지한다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입니까?”(12.28.27.) 이러한 이해의 다양성은, 진리는 단일하고 불변한 것이지만, 진리를 바라보는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가변적이기에 온갖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 자체가 가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그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진리들을 근거로 한다면 가변적인 존재인 인간의 해석은 용인될 수 있는 다양성이자 진리의 특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 안에 있는 것들이다(212.19.28.).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본적인 진리들에서 출발한다면 각자의 탐구 결과는 인간 존재의 가변성에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양태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이해가 다 용인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하며, 거꾸로 자기의 이해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하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단일한 무언은 아니지만, 단일한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엇을 사랑한다면, “진실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된다(12.25.34.). 따라서 내면의 탐구에서 나오는 고유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공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지성들 위에 있는 불변하는 진리 그 자체 안에서” 보는 이상(12.25.35.), 우리는 “진리의 빛 속에서 각자의 이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에 있어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지식 또는 교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반드시 하나의 방식 또는 하나의 양태로만 취할 수 있는 것은 아

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이중적인 측면은 교육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으로 볼 때 올바르게 인식된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은 사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상위의 것을 재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향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12.27.34.).

### 3. 『고백록』13권: 인간이라는 한계 또는 가능성

11권에서 인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내면의 탐구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기도제를 제시한 아우구스티누스는 12권에서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모두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진리들을 공적인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건이 전제된다면 다양함이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내면의 탐구를 통하여, 그리고 기초적인 진리들을 지킨다면, 하나의 성장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내면의 탐구와 기본적인 진리가 회심 또는 교육적 성장을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11권에서는 내면의 탐구의 최종점에 있는 것이자 내면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이라는 강조를 통하여(10.25.36.), 12권에서는 인간은 영원불변과 대비되는 가변적인 존재라는 환기를 통하여(12.8.8.) 암시되어 있다.<sup>4)</sup> 이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3권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3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하여 묻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창조는 우리의 공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자 사랑의 베품이다(13.1.1.).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모종의 이유 때문이 아니다(13.2.2.).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특히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무엇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무엇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든가 하는 것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심연(abyssus)으로 칭한다(13.2.3). 심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확인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원인인 신과 다르게, 무엇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13.3.4.). 이러한 점은 앞선 권들의 주요 주제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0권에서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에 의지해야 비로소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11권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에서 완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존재였으며, 12권에서 인간의 이해는 불변하는 진리에 터하고 있어야만 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관점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성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회의적인 입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신을 닮은 피조물이다. 이러한 점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성과

---

4) 이러한 점은 『고백록』 1-9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로 전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교회를 나가는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쉽사리 전향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특히 7-8권을 참조하라.



완전히 절연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이해를 추동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완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닮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행위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향(commutatio)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어두운 심연과 같은 존재이지만, 빛을 향해 전향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심연은 한 편으로는 혼의 불결한 모습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진리를 향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양가적인 형태를 띤다(13.7.8). 인간은 전향을 통하여 신에게 비추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암울하고 혼탁한 존재로 남을 수도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전향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식과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나'와 다른 '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다(13.10.11).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진리, 빛을 향한 전향이며, 전향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전향에 그치는 소극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신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는 신과 유사한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는 내적인 변화의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존재하다. 인식하다, 의욕하다”는 이 셋입니다. 저는 존재하며 따라서 인식하고 또 의욕합니다. 저는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존재하고, 또 제가 존재하고 의욕함을 인식하고, 또 존재하고 인식하기를 의욕합니다. 이 셋이 불가분한 생명, 곧 단일한 생명이고 단일한 지성이요 단일한 존재자임을 알 만한 사람은 알아볼만합니다. (13.11.12.)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표현의 한계상 존재와 인식과 의욕을 순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셋이 '불가분하다'는 그의 서술은 이 셋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착안한다면, 우리는 인식과 의욕 존재가 하나로서 표현될 때 진정한 전향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이해하는 것과 욕구하는 것이 일치하고, 그것이 존재로서 표현될 때, 다시 말하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욕구하는 바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단서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셋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인 이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측면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동시에 삼위일체의 인식, 의욕, 존재는 유한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의 이해는 자신의 내면의 탐구를 통한 자신 고유의 이해로, 의욕은 자신이 겪는 바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존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관점을 주지시킴과, 절대적인 관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을 경계한다. 교육적 성장은 신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발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모두 통제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 채로 끝없이 고백하라는 것이다(13.12.13). 여기서 고백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찬미라는 차원과 자신의 삶에 대한 표현이라는 양가적인 의미가 진정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만, 동시에 영원성을 감지하며 그것을 닮기 위하여 지향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 안에는 불완전한 요소도 있지만, 완전성에 닿아 있는 요소도 있다. 후자를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개념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존재를 향유하는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13.13.14). 고백은 내면의 이해를 위한

진심어린 기도이자, 기본적인 진리에 기초한 나만의 고유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자,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며 동시에 영원불변한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고백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완전성을 지향하고 존경하는 행위이며, 완전성에 닮아가는 행위이기도 하다.

#### IV. 나가며: 11-13권의 교육학적 함의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하나의 교육적 성장이라고 본다면, 『고백록』을 자신의 변화를 자서전적으로 기술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자는 11-13권을 자신의 교육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밝힌 교육학적 관점이 담긴 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10권에서 자신의 회심의 계기에 대하여 내면의 탐구에 초점을 둔 아우구스티누스는, 11권에서 탐구의 형식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해를 기도를 통하여 심화시킨다. 12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해가 사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인 측면, 즉 영원불변의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러나 13권에서 인간 존재가 가지는 유한성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전향된 상태에서 인식, 의지, 그리고 존재 또는 실천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데 겸손을 가지고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진정으로 교육학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모두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에 모두가 그것에 전문가라 칭하며 나름의 견해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 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교육의 탓으로 돌리기도, 다른 한 편으로는 교육 이외의 것들로 인하여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고백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교육적 성장은,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신의 입장에서 필연적일지언정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이 점은 우리가 교육에 대하여 오만함을 접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함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통제하여 한 사람의 성장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의 영역이고,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도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결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향한 지향, 또는 전향이다. 우리는 삶이라는 심연에서 아래가 아닌 위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지향이 하나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앓, 뜻, 삶이 일치할 때 그러한 변화가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Augustine, *Confessiones*.  
trans. Chadwick Henry(1992) *Confession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성염 역(2016), 고백록. 파주: 경세원.  
trans and commentary O'donnell, James J(1992). *Augustine Confessions: Volume 3*, Oxford : Clarendon Press
- Lacey, Hugh M.(1972). Empiricism and Augustine's Problems about Time. in R.A.Markus(eds). *Augusti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280-308.
- Lloyd, Genevieve(1999) Augustine and the "Problem" of Time. in Gareth B. Matthews(eds). *The Augustinian Tradition*. 39-60.
- Helm, Paul(2014). Thinling Eternally. in William E. Mann(eds). *Augustine's Confessions: Philosophy in Autography*. 135-154.
- Hoenig, Christina(2018). *Plato's Timaeus and the Latin tradi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 Jordan, Robert(1972). Time and Contingency in St. Augustine. in R.A.Markus(eds). *Augusti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255-279.
- Knuuttila, Simo(2014). Time and Creation in Augustine. in David Vincent Meconi, S.J. and Eleonore Stump(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ne*. 2<sup>nd</sup> edition. 81-97.
- O'Connell, Robert J(1989). *St. Augustine's Confessions: The Odyssey of Soul*.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c1989
- Quinn, John M(2002) *A companion to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New York: P. Lang
- Sorabji(1983) *Time, creation, and the continuum : theories in antiquity and the early middle ages*.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